

# 사진기록물의 정리 및 기술에 대한 연구

- 최민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rranging and Describing of Photograph Archives for Choi Min-Sik Collection

박 치 흥(Chi-Heung Park)\*

허 희 진(Hee-Jin Heo)\*\*

안 나(Na An)\*\*

### 목 차

- |                 |                      |
|-----------------|----------------------|
| 1. 서 론          | 3.2 사진기록물의 정리        |
| 2. 최민식 컬렉션      | 3.3 사진기록물의 기술        |
| 2.1 최민식 컬렉션의 구성 | 4. 최민식 사진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
| 2.2 최민식 사진의 특징  | 4.1 최민식 사진기록물의 정리    |
| 3. 사진기록물        | 4.2 최민식 컬렉션의 기술      |
| 3.1 사진기록물의 정의   | 5. 결 론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사진작가 최민식의 다큐멘터리 사진기록물에 대한 정리와 기술에 필요한 요소들을 연구 조사하였다. 기록학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요소들에 관한 내용을 분석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기록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 체계는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한사람의 사진작가가 지속적으로 촬영한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대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사진기록물, 다큐멘터리 사진, 최민식, 사진작가, 정리, 기술, 컬렉션

### <ABSTRACT>

In this study,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documentary photographic records about photographer, Choi Min-Sik have been reviewed. Throughout the literature review,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photographic records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universal classification plan of administrative records is difficult to apply to photographic records. This study suggests the case of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photographic records a photographer produces continually.

Keywords: photographic records, documentary photographs, photographer Choi Min-Sik, arrangement, description, collection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chiheung@busan.ac.kr)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baobam-tea@hanmail.net; egypt611077@naver.com)

■ 접수일자 2008년 5월 28일 ■ 수정일자 2008년 6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20일

## 1. 서론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의 사진기록물(manuscripts)을 정리하고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수집과정에서 확인된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성은 사진의 힘을 이용한 여론조성과 사회개혁을 한 역사적인 기록의 가치로서 자주 거론된다. 초창기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업적을 통해서 사진이 가지는 기록으로서의 증거적 가치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써 법적 권위에 버금가는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역할'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의 일 단면을 드러내는 예술의 한 장르'로 그 위치를 구축해 왔던 사실을 지적한다.<sup>1)</sup>(정영혁 2003)

최민식은 지난 50 년간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짝 다가가서 그들의 얼굴을,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정면에서 찍어 왔다.' 최민식 컬렉션에서 사진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질 높은 기록서비스를 제공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컬렉션의 특성에 따라 사진기록물에서 일반적인 기록관리 원칙으로 정의되는 출처의 원

칙, 원질서 원칙, 집합적 기술, 계층적 관리에 근거하여 유사한 형태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기록사진작가의 사진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사진 이외의 기록물과 생산자의 유형이 다른 기록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 예측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기록관리의 일반 이론으로부터 확보되는 사진기록물 정리·기술에 관한 이론과 최민식 컬렉션의 사진기록물에서 비롯되는 계층적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에 대한 논의로 제한하였다.

## 2. 최민식 컬렉션

### 2.1 최민식 컬렉션의 구성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은 지난 50년간 부산에 거주하면서 촬영한 사진기록물 14만 컷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 전수조사에 의해 확인된 최민식 작가가 생산한 기록물은 14만 컷을 넘기는 필름과 1만 점에 달하는 인화사진, 자필 원고, 사진기 등의 박물, 그 외 '인간 14집'을 비롯한 사진집과 사진전문서, 수필집, 보도

1) 정영혁(2003)은 세 명의 사진가를 예로 들었다.

- 매튜 브래디(Mathew B. Brady, 1823-1896) 남북전쟁을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그의 사진을 통해서 전투경로를 추적하여 전투를 목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쟁의 참상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하였다. 7,000여장의 네가티브 사진을 미국 국립보관소와 의회 도서관에 소장품으로 남아있다.
- 존 톰슨(John Thomson, 1837-1921)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로 영국의 빈곤한 노동자 계층의 삶을 그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존 톰슨은 최초의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불리어졌다.
- 유젠느 앳제(Eugene Atget, 1856-1926) 그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파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화가들에게 팔아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파리의 거리 - 행상인, 거리 청소원들, 거리의 텅빈모습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급변하는 파리의 역사를 기록한 2,500여 장에 달하는 원고들은 1차 세계대전 후 정부의 기록보관소가 파리의 역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두 사들였다.

스크랩 등이 있고, 소장자료는 국내외 희귀 사진집, 사회과학 도서, 음반 등으로 구성된다.

## 2.2 최민식 사진의 특징

저서 '진실을 담은 시선, 최민식'에서 최민식(2006)은 '내 사진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 중에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렌즈에 담아왔다'고 말한다. 최민식은 한국사진예술의 1세대로서 국내 리얼리즘 사진의 독보적인 존재이면서 가난한 사진작가로서 살아왔다. 한국국전특선(1965), 대한사진문화상(1995), 백조사진문화상(1996), 동강사진문화상(1995) 등 국내 수상 기록물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의 해외 수상 기록물, 그리고 15회의 해외 개인초청전을 가졌으며, 사진집 <인간> 13집을 출간했고, 여러 권의 에세이집과 사진평론집을 내면서 끊임없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민식은 황해도 연안 출신이라고만 기록된 자료도 있으나, 1928년 안동에서 태어나 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연안으로 돌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평안남도 진남포 미쯔비시 기능자 양성소에서 기능교육원 2년 과정 중에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에는 서울 용산에 있던 미술학원 야간부에 다녔고, 1950년부터 1955년까지 군복무 중에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화랑무공훈장 2개(은성 52, 무성 53)를 받았다. 군복무 중이던 24세에 결혼하였으며, 제대 후 모직회사에 다니다가 화가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동경 중앙미술학원

디자인과에 다니던 시절 헌책방에서 우연히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사진집 <인간가족>을 본 것이 사진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57년 귀국하여 해동모직 선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진 촬영을 시작하여 50년 동안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14만 점이 넘는 사진을 남겨 국가기록원으로 기증하였다. 1960년부터 2년간 카톨릭계 한국자선회의 사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대만 국제사진전에 처음으로 2점이 입선하였고, 이후 1987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사진전에서 220점이 입상 및 입선 하였으며, 1967년 영국사진연감에 6점이 특집 수록되면서 '스타 사진작가'로 선정되어 '카메라의 램프란트'로 격찬을 받았다.

## 3. 사진기록물

### 3.1 사진기록물의 정의

사진이란 '감광물질을 빛에 노출시키고 그 후속적인 화학적 현상에 의해 얻어진 영상이미지'로 정의되며, 사진의 종류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인화사진으로 나누고 있다. 기록물로서 사진이 종이문서와 구분될 때는 시청각기록물에 포함되었다.<sup>2)</sup>(SAA 용어집 2005)

사진촬영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이전에는 필름과 '인화된 사진'으로 구분하였으나(이영배 2003),<sup>3)</sup>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뉴스

2) SAA 용어집(2005) '시청각기록물은 '도상기록물, 필름기록물, 사진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로, 포맷에 관계없이 시각과 청각형태의 모든 기록물을 의미한다.'

사진이나 다큐멘터리사진으로부터 개인적인 기록사진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모든 사진을 고려해보면, 사진은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언하고 발언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임에 틀림없다(박재건, 2002). '나는 왜 사진을 하는가?'라는 작품활동에 대한 자문에 대답하는 최민식(2005)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의 사진들은 내가 살았던 시대와 역사의 증언이다. 그 사진에 담긴 서민들은 모두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며, 내 작품의 단골 주인공이기도 하다. 서민들의 삶을 통해 나는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했다.”  
- 최민식(2005.6) 「사진이란 무엇인가?」 - 중에서

### 3.1.1 사진기록의 수집가치

예술은 한 시대의 삶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역사의 투영이며 자기 판단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예술 작품은 지금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간의 기록, 즉 때로는 다른 기록들과 상호 연관되고 때로는 그 전체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으로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박재건 2002). 예술작품은 종종

그 시대의 다른 문화적 표현들, 즉 정치적, 사회적, 지적 표현들과 병행하거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예술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과 그 시대에 대한 생활을 명확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박재건 2002).

앤셀 아담스(Ansel Adams 1902~1984)는 사회적 상황을 비평적으로 해석한 사진 유형에는 '포토 다큐먼트'라는 용어를 쓰면 적합하다고 했다. 포토 다큐먼트는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대 문명이나 사회 상황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체를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의 포토 다큐먼트는 문화·건축·예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표현 양식과 가공품이 보여주는 물질적인 증거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록한다. 이러한 포토 다큐먼트에는 항상 연대가 붙는다. 첫 번째 부류는 확실하게 현대이고, 두 번째 부류는 현대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작품들을 제작하였던 시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Beaumont Newhall 외 1996). 사진은 과거의 경험(Rundell 1978)<sup>4)</sup>일 뿐 아니라 국가와 시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Homes 1895)<sup>5)</sup>로서 거대한 컬렉션으로 수집 관리할 기록물(Francis 1888)<sup>6)</sup>이 되고 있다.

- 3) 사진기록물의 기술요소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사진은 일반적으로 필름과 구별하여 '인화된 사진'을 말하고 필름은 기계적 영상의 부산물 또는 중간 매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필름은 사진을 무한히 복제 가능한 원본으로써, 이에 대한 기계적 조작을 통해 즉시 '사진화'된 의미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과 필름은 서로 기계를 매개로 하는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진과 필름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특별히 지칭하거나 관리적 필요에 의해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이영배 2003).
- 4) 미국의 과거 산업 부흥 현장에 대한 사진기록이 과거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점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보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고증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진기록물이 지니는 특성과 의의를 역설하였다.
- 5) 사진을 “과거기억의 투영”으로 묘사하면서 사진기록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도서관에서 도서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사진기록도 거대한 컬렉션으로 만들어 수집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 6) 국가와 시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담은 사진기록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집해야 할 것이다.

### 3.1.2 사진기록물의 증거적 가치

Eastlake(1857)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사진은 예술의 영역 혹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에 대한 증거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진중권(2003)은 '복제의 고유성'을 인정한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벤야민(1892~1940)<sup>7)</sup>을 거론하며 '진품성이라는 개념이 위조 앞에서는 힘을 발휘해도 복제 앞에서는 무력하다.' 사진 인화에 있어서 '어느 것이 진짜 인화냐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예술생산에서 조차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효력을 잃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의 증거물'로서 "사진의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Barr(1985)는 '사진기록이 생산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행정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기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어떤 다른 유형의 자료보다 사건현장을 가깝게 포착하고 재현해 내는 순수하고 분명한 과거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므로 사진의 증거적 가치와 객관적 특성은 기록으로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 3.1.3 사진기록물의 특성

"사진은 선택에 기초한 회화작성 과정"이며, 사진의 기본요소 5가지(피사체, 피사체의 배열, 프레임, 시간, 유리한 위치)가 사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zarkowski 1966). 사진

기록에 내재된 본질적 성격상 현장의 진실을 표현하는 근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사진기록물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사진의 진본성과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위의 요소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진실을 고증하는 '기록성(Social Documentary),' 과학과 미술의 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각예술을 창조한 '예술성(Artistic Originality),' 정보를 전달하며 상호 교감하는 매체로서의 '시각 언어성(Visual Language as Communication),' 예술의 저작권(Authorship)이 해체됨으로써 대중성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복제성(Reproduction)' 등을 들 수 있겠다(김철권 1998).

## 3.2 사진기록물의 정리

### 3.2.1 우선순위와 계층적 관리

처리할 기록물 분량이 많지 않고 긴급히 이용될 가능성도 없는 기록물이라면 작업효율을 따져 처리작업에 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 분량이 많고 처리작업 중에 긴급히 이용할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 이용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쌓여 있는 기록물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정리, 기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또 그 기록물에 대한 처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해야 알맞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계층적 관리 그리고 점차 정제되어 가는 정리와

7) 유대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 문학평론가, 철학자. 게르솜 솔렘의 유대교 신비주의와 베르톨트 브레히트로부터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비판이론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도 관련이 있다.

기술은 이러한 결정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처리 계획을 세울 때는 현행 용도에 대한 이해와 장래의 이용 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결합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스의 세계에서 그러한 예측은 과학적인 모델에 기초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아카이브스트는 연구 이용에 쓸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기록물이 생산된 이유에 관한 지식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록물을 평가해야 한다.

아카이브스 정리에에는 기록물 덩어리가 의미 있는 내적 질서를 갖추도록 만들어 주는 일과 보존소 소장물들을 조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내에 기록물들을 위치시키는 일이 모두 포함된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처리과정'이라고 정의한 정리의 개념을 아래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다.

- 1) 공통된 성격과 공통된 파일 구조를 갖는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온 기록물 세트를 확인하거나 한데 모으고
- 2) 기록물 세트끼리의 관련성 기록물과 그 기록물 생산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3.2.2 정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미국에서 이제까지 기록물 정리를 지배해 왔던 작업상의 접근 방식은 주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가 방대한 양의 현대 기록물을 관리하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의 핵심은 보다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 규모로 내려가는 즉, "보존소에서부터 - 기록물 군/매뉴스크립트 컬렉션 - 시리즈 - 파일 단위 - 개별 문서"까지 내려가는 정리의 '다섯 단계 계층' 개념이다. 출처에 따른 정리와 파일구조에 따른 정리를 구분하면 <표 1>과 같다.<sup>8)</sup>(한국기록관리학회編 2008)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정리는 폴더 단계, 때로는 문서 단계에서까지 훨씬 더 상세한 작업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아카이브스트는 파일링 구조를 새로 만들어 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있는 것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잘 정돈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도 보통은 약간 무질서하거나 잘못 식별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물 군을 정리하기 전에 아카이브스트는 그 기록물의 출처, 내용, 정리와 상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아카이브스트는 일반적으로 기록물 생산자의 역사와 그것을 만든 상황, 그리고 문

<표 1> 정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출처에 따른 정리	아카이브스 기록물 군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하위 군(아카이브스와 매뉴스크립트), 하위-하위군... 활동/기능을 문서화한 시리즈
파일 구조에 따른 정리	함께 파일 된 기록물 시리즈 하위 시리즈, 하위-하위 시리즈... 파일 단위 개별 문서와 아이템

8)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에서는 보존기록의 기본계층을 기록군(records group) - 기록하위군(record subgroup) - 기록계열(records series) - 기록철(records file) - 기록건(item)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화된 활동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기록물을 만들어 낸 상황과 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기록물들을 적절히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기록물의 특성과 질서는 또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는 순서를 결정한다. 기록물이 긴밀한 구조를 가진 질서 있는 상태로 도착했을 때 정리 작업은 가장 큰 단위에서부터 점차로 더 세밀한 하위분류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리는 주로 기록물 컨테이너를 입수된 대로 서가에 두는 것 - 필요하다면 내구성이 있는 아카이브스용 컨테이너 안에 그것을 다시 포장해 넣어서 - 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행정 단계와 하위 단계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키비스트가 다음에 이루어질 기술 작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록물에 대한 전체적인 질서가 없어서 아키비스트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전체적인 정리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다양한 시리즈의 묶음들 그리고 다른 문서들을 모아 주어야 하고 정리의 결과로 전체적인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질서가 아카이브스를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리 작업이 오히려 질서를 만들어낸다.

SAA 용어집은 출처를 1)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 이루어진 업무활동 중에 기록을 생산·축적·유지·사용한 조직이나 개인, 2) 기록의 기원과 보관내력과 관련된 정보 등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SAA 1992).

ICA는 출처를 기록을 “생산·축적·유지·활용하는 개인이나 조직과 기록관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ICA 2003). 개인이나 조직은

업무나 활동과 관련하여 기록을 생산하므로 그 관계의 중심에는 업무나 활동이 있게 된다.

기록물들은 이관하는 동안에 기록물 군이나 컬렉션으로 식별되었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또한 기록물 군 혹은 컬렉션의 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다. 기록물 군이나 컬렉션의 번호는 앞으로의 모든 처리과정과 참고 업무에서 사용될 것이다.

대부분의 출처에 의한 정리 작업은 하위 군의 식별이나 혹은 설정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기록물 군이나 컬렉션이 반드시 하위 군으로 나누어질 필요는 없으며 조직의 구조나 몇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기능 혹은 활동에 의해 하위 군의 존재가 정당화될 때만 아키비스트는 하위 군 개념을 사용한다. 아키비스트가 설정한 하위 군은 특히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원래의 기록물 생산자가 유지했던 하위 군으로서의 물리적인 통일성이 부족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시리즈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거나 시리즈 내에서 과일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기록물을 재정리한다. 또한 파일에 부여한 새로운 질서가 가설적 연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기초를 둔 게 아니라 기록물을 생산했던 활동을 재구성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 기록물은 탈산 처리된 상자와 폴더에 저장되어야 한다. 각각의 폴더는 최소한 컬렉션 이름과 번호, 파일 표제, 고유한 폴더 번호로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상자 번호와 시리즈 이름도 보통 덧붙여진다. 그런 뒤 기록물들은 보통 표준적인 법정 크기 혹은 편지지 크기의 아카이브스 상자, 1입방 피트의

기록물용 상자, 묶음이나 대형 크기의 기록물을 위한 평평한 상자에 넣게 된다. 가능하다면 한 박스에는 한 시리즈의 끝 부분과 다른 시리즈의 시작부분을 함께 넣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용되지 않은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탈산된 충전 재료나 지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대로 보존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상자 속을 용량 이상으로 지나치게 꽉 채워 넣지 말아야 한다. 상자의 라벨에는 보존소 이름, 기록물군/컬렉션의 이름, 관련된 하위 부서와 시리즈의 이름, 상자 속에 들어 있는 폴더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기록물을 서가 위에 배치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형태에 따른 분리를 고려한 후 보존소는 함께 처리된 기록물을 같은 장소의 서가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상자 라벨의 정확한 모양과 형식은 각 보존소의 선택에 맡길 문제이지만 그것은 절차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서가에 배치하는 목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또한 시리즈 상태로 존재하는 통일된 파일링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3.2.3 보존기록물 정리

(Archival arrangement)

셸렌버그(Schellenberg 1956)는 정리와 분

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는 현용기록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분류'를, 기록관에 영구보존을 위해 이관된 보존기록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정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스트우드(Eastwood 2000)는 "기록 정리는 문서의 물리적인 순서나 보관 위치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리 개념의 핵심은 "생산과정 중에 형성되는 문서나 기록의 자연적 축적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각국의 기록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현용기록과 보존기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체' 개념에 따라 조직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김유리 2003).<sup>9)</sup> 특히 전자기록시스템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정리'의 개념 역시 물리적 질서보다는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승억 2002). 즉, 물리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정리는 기록에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곧 분류와 정리의 개념이 통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보존기록(archives)을 정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기술의 단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존기록 기술은 집합적이고 계층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집합적 기술이란 기록을 하나의 문건(item) 이상으로 논리적으로 묶은 후 이를 집합

9)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 용어집에서는 정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리란 보존기록을 출처의 원칙과 같은 원칙에 맞추어 기록을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이고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말하며 여기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는 포장, 라벨 부착, 서가 배치가 포함되며 소장기록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AA, 1991). 중국에서는 기록분류를 정리분류와 검색분류로 구분한다. 검색분류는 도서관에서의 주제분류와 유사하며 기록의 건이나 철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리분류는 서가배치의 기준이 된다고 하여 실체분류라고 하며 기록 생산자나 생산기관을 기준으로 계층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리분류는 기록이 생산될 때의 정황과 역사적 면모를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역사분류라고도 한다.

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Miller 1990, 49). 문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문헌들을 분리된 개별 단위로 목록 기술하지만 기록은 전체 기록군 속에서의 유기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분류를 통해 계층화와 범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계층에 따라, 유기적 관계에 따라 집합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필요하다.

둘째, 보존기록 검색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록은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 기록 덩어리 속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기록의 분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분류표를 통해 기록 간의 유기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기록의 건이나 첩을 대상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정리체계를 통해 조직된 기록계층을 활용하면 검색 건수를 줄일 수 있다.

보존기록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의식적인 산출물이 아니며 활동이나 기능의 산물인 기록을 보편적인 지식분류체계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체계로는 앞서 밝힌 기록분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의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각기 구축해야 하며 그 아래에서 업무 및 기능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존기록은 연역적 분류틀을 개발하기 어렵고 각급 기관의 준현용기록분류체계를 보존기록분류체계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정교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갖춘다 해

도 계층적 정리·기술 없이 건, 첩 별 기술만으로 검색효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존기록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의 물리적 위치(서고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보존기록의 분류는 검색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공개, 평가 등의 업무에도 필요하다.

### 3.3 사진기록물의 기술

#### 3.3.1 사진기록물 기술의 특성

사진기록물은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기록된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 기록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보존에 있어서 일반 종이기록물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hrenberg (1984)는 비문자기록물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런 '비문자기록물은 기술적·미학적 특징이 있어 이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예술·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기록물에 담겨 있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집중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통정이나 검색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사진기록물은 어떤 현재적 사실이 시·공간으로 분절되어 한 컷 또는 연속된 여러 컷의 필름에 담겨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서술적 구조를 갖게 된다. 사진기록물은 종이기록물과는 달리 다양한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인화된 재질에 따라 인화지, 천, 석재 등으로 필름은 폴라로이드사진·흑백필름·네거티브필름<sup>10)</sup>·포지티브필름<sup>11)</su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 네거티브(negative)란 현상된 사진의 화상에서 피사체의 명암이 반대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컬러 네거티브의 경우는 명암이 반대일 뿐 아니라 색도 그 보색이 된다. 보통, 네거티브의 화상은 현상 처리에 따라 필름 바탕 위에 형성되며, 음화를 통과한 빛이 인화용 감광재료(인화지) 위에 투영됨으로써 양화 화상이 만들어진다.  
 11) 포지티브(positive)란 양화 상태의 사진영상을 말한다. 포지는 포지티브 필름의 약어로 슬라이드 필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상 후에 바로 양화의 필름이 되므로 프로젝터를 통한 감상용이나 인쇄 원고로 많이 사용되나 관용

이런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관리 및 보존 방법이 달라지고, 이런 특징들을 반영하여 기록물 기술을 하여야 한다. Ritzenthaler(1993)은 사진기록물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사진기록물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사진기록물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연구이다.

첫째, 사진기록물의 기술은 레코드와 컬렉션 레벨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련된 사진 그룹은 개별사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 특히 특정 사진가 또는 전문 사진가의 사진, 자체 촬영되거나 개인·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된 사진, 주제 또는 특정한 논제로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 명확한 포맷 또는 절차로 구성된 컬렉션 사진, 숫자 또는 시간 순서로 된 의미가 있는 사진, 특정 이벤트·장소 또는 인물을 상세히 기록한 사진, 관련된 기록 자료가 있으며 원질서를 가진 컬렉션 사진들은 그룹화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한 장의 사진을 보관 및 서가 배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진의 물리적 특성도 그룹단위의 처리가 적절하다. 필름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곤란한 연속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된 롤 단위의 의미구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사진기록물은 이미지 자체가 정보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기술에서 주관적 기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진기록물과 연관되는 기록물이 사진 기록물과 분리되어 이관될 수도 있으므로 내적

관계가 존재하는 두 연관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컬렉션 기술은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컬렉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컬렉션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석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기록물은 일반기록물과는 달리 기록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기록물 자체에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은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컬렉션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진기록물을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개별적으로 존재했을 때 알 수 없던 정보들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기록물은 일반기록물의 첨부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기록물과의 관계를 가지는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 3.3.2 사진기록물 기술의 원리

기록물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기록물은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진다. 사진기록물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여 정리·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기록물은 Schellenberg(1956)와 Maher(1992), 'A Manual for Small Archives'(AABC 1994)에서는 사진기록물의 특성이나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서는 재배열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재배열을 할 때에는 주제, 장소, 날짜 등과 관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컬렉션으로 사진기록물 관리

도가 네거티브 필름보다 좁은 것이 단점이다.

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재배열이 그 컬렉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록물 기술에서 중요한 원칙이 집합적 기술과 다계층 기술의 원칙이다. 집합적 기술은 기록물 건에 대한 기술보다는 기록물 전체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Ritzenhaller(1993)의 사진기록물의 첫 번째 특성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계층 기술은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존중하여 기록물을 계층별로 기술하고 각 계층의 기술을 서로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ISAD(G)에서는 다계층 기술의 원칙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장 포괄적인 상위계층에서 구체적인 하위계층으로 기술한다. 둘째, 각 기술계층에 적절한 정보를 기술한다. 셋째, 각 기술을 연결한다. 넷째, 상위 계층 기술에서 제공한 정보를 하위계층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다계층 기술 원칙은 사진기록물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사진기록물에서는 다계층 관리로 이용되기보다는 생산특성상 몇 가지 적정 레벨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작가가 특정한 기간동안 찍은 사진이 하나의 컬렉션을 구성할 경우에는 컬렉션 레벨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File이나 Item레벨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4. 최민식 사진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 4.1 최민식 사진기록물의 정리

최민식 컬렉션에서 필름과 인화사진으로 구

성되는 사진기록물은 수량에서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자를 위한 기록서비스를 고려한 정리 작업에서도 가장 세심하게 다뤄야 할 부문이다. 그러나 전시와 출판을 위해 원질서로부터 사진기록물이 인출되어 제자리로 복구되지 못하였거나 이사, 일부폐기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필름이 분실되었고, 그동안의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질된 사진기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사진을 배우는 제자의 사진기록물이 섞여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최민식 사진기록물의 정리작업은 내재된 질서에 따라 특정하는 방식으로 분류·정리하였다.

#### 4.1.1 정리와 계층적 관리

최민식 컬렉션은 최민식이라는 한 사람이 지난 50년간 생산한 기록물로서 최민식 작가의 서재와 창고에서 이관되는 기록물이라는 공통된 원천으로부터 나온 기록물 세트이다.

필름은 사진 작가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출판된 사진집에 게재된 필름을 A급으로 구분하고 사진집에 실리지 않은 필름 중 촬영 장소와 촬영연도를 알 수 있는 필름을 B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촬영장소와 촬영연도를 알 수 없거나 훼손된 필름을 C급으로 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리 작업을 하였다.

최민식 컬렉션에서 필름세트는 A급에서는 사진집 낱권에 따라 구분되고 B급과 C급은 필름이 원래 보관되어 있던 상자에 따라 구분된다. A급 필름은 출판된 사진집에 실린 사진필름과 전체 14만 컷의 필름을 대조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거쳤다. B급 필름은 A급 필름이 발견된 필름자켓 또는 그 자켓이 내포된 묶음으

로서 촬영연도나 촬영장소가 밝혀진 것들이며 최민식 작가의 확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C급 필름은 앞으로 작가의 기억과 작가의 촬영 활동을 대조하여 촬영연도와 장소를 밝혀내야 할 필름자켓 묶음이다.

정리의 두 가지 형태 즉, 출처에 따른 정리와 파일 구조에 따른 정리 중 최민식 컬렉션은 최민식 작가가 단독으로 생산한 기록이므로 출처에 따른 정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파일 구조에 따른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최민식 컬렉션의 기록물 시리즈는 필름, 출판물, 인화 사진, 원고, 박물<sup>12)</sup>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름은 다시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A, B, C 3등급의 파일 단위로 정리되고 각 파일 아래에서 연도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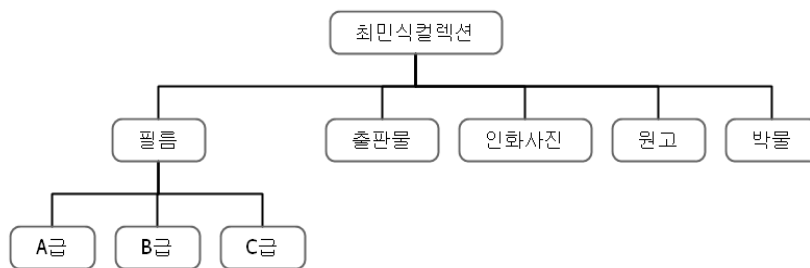
최민식 컬렉션의 기록물 시리즈를 <그림 1>과 같다.

#### 4.1.2 정리의 절차

최민식 작가의 서재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은 작가가 출판 또는 전시를 위한 작업 과정에서 원래 보관되어 있는 보관상자에서 필름을 추출한 후 다시 정리하면서 원질서가 파괴된 부분이 있고 이사와 작가 자신의 폐기 작업 과정에서 또 한 번 원질서가 파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민식 컬렉션은 원질서가 상당부분 무너져 있었다. 최민식 컬렉션 시리즈 내에서 파일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기록물을 생산했던 작가의 활동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필름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정리 작업을 통해 최민식 컬렉션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리 작업이 무너진 원질서를 복구하는 기준이 되고 함께 묶음으로 존재하는 필름 몽치들은 같은 촬영연도와 촬영장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민식 작가의 생산 활동 순서에 따라 원질서 회복이 가능하다.

최민식 컬렉션의 필름은 최민식 작가가 단독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최민식 작가만이 그 촬영장소와 촬영연도를 기억해낼 수 있다. 필름



<그림 1> 최민식 컬렉션 기록물 시리즈

12) 출판물은 최민식 작가의 사진집과 작가가 수집한 외국 사진집, 도서들을 모두 포함하고 인화사진은 사진집을 출판하기 위해 촬영했던 필름 중 선별하여 인화했던 사진들을 말한다. 원고는 에세이집을 출간하거나 잡지에 실기 위해 직접 쓴 원고를 말하며 박물은 촬영 장비들, 트로피와 상패, 작가 개인이 수집한 음반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최민식 컬렉션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수량을 파악하였다.

만으로는 일일이 대조하며 촬영 당시의 원질서를 온전히 복구 또는 재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관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산자가 설정한 파일의 내부적 정리 상태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B급과 C급 필름은 최민식 작가의 서재와 창고 등 보관 현장을 세밀하게 촬영하고 현장의 보관상자<sup>13)</sup> 단위의 원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필름자켓에 옮겨 보존 상자에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필름은 기본적으로 5컷으로 보관되어 있으나 작가의 필요에 의해서 1컷 혹은 2컷으로 구분되어 있는 필름 역시 작가의 의도로 행해진 것이므로 필름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질서에 입각해서 정리 작업을 하였다.

최민식 컬렉션의 필름은 1줄(1~5컷) 이내에서 촬영 순서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정확한 상황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현상소에서 제공하는 필름자켓 내에서는 현상 당시의 원질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필름자켓 묶음은 비슷한 분량으로 상자에 담겨있어 세트로 구분된다.

필름이 보관되어 있던 상자 속에 존재하는 필름자켓 묶음은 촬영시기와 장소가 비슷하거나 같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진집과 대조하여 필름자켓 묶음에서 동일한 사진을 찾고 그것은

최민식 작가의 확인 작업을 거쳐 촬영연도와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으로 촬영연도와 촬영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필름자켓 묶음은 작가의 촬영활동 상황과 작가의 기억에 대조하여 원질서를 재구축하는 작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름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보존상자<sup>14)</sup>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원질서에 따라 필름 1세트(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컷)를 보존용 자켓 1행에 삽입하여 정리하고 각 보존용 자켓 왼쪽에 7행 5열로 작성된 필름 목록<sup>15)</sup>을 삽입하여 각 필름에 대한 페이지, 촬영 지역, 설명, 촬영 연도, 연속촬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 B, C 3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표 2>와 같다.

#### 4.1.3 물리적인 취급과 보관

A, B, C 3등급으로 구분된 필름은 원질서에 따라 정리한 후 3등급으로 구분한 기준이 다르므로 A급과 B·C급의 정리 방법을 달리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보존상자에 필름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각각 정리하였다.

A급 필름 보존상자는 사진집 별로 1개 보존상자로 하며 상자에 삽입하는 자켓 수는 사진집 별로 필요한 만큼 삽입하였으므로 사진집 별로 1개 상자 당 자켓 수에 차이가 있다. 1~5컷으로 되어 있는 필름과 규격이 다른 슬라이

13) 최민식 작가가 현상소에서 제공하는 필름자켓 묶음들을 상자별로 일정하게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고 B·C급 필름 정리는 그 보관상자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각 상자 안에서 필름자켓 묶음들이 정리되어 있던 원질서를 유지하며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이후 원보관상자라고 함).  
 14) 필름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상자.  
 15) A급 필름의 경우, 필름 자켓 왼쪽에 필름의 각 컷에 대한 사진집에 기재된 페이지, 촬영 지역, 컷에 대한 20자 내외의 간단한 설명, 촬영 연도, 연속촬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속촬영은 사진작가가 동일한 인물이나 배경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구도가 다르더라도 연속촬영으로 보았으며 '컷 번호/전체 컷 수'로 표시하였다.

〈표 2〉 최민식 컬렉션의 사진 등급 분류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집 별로 1개 보존상자에 사진집 페이지 순서에 따라 사진집에 게재된 한 컷을 보존용 자켓 1행으로 정리</li> <li>- 단, 필름이 연속촬영 된 것이 확인된 것에 한해서 1컷이 1행을 넘어도 이어서 정리</li> <li>- 사진집에 게재는 되어 있으나 필름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행을 비워둠으로써 향후 필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함</li> </ul>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장소와 연대가 확인된 필름이 한 개의 원보관상자에 있으면 B급으로 분류하여 정리</li> <li>- 원래 필름이 보관되어 있던 원보관상자 별로 상자 내 질서에 따라 정리</li> <li>- 필름상자 내에서 별도로 생산자(최민식)가 구분하여 보관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번호(구분번호)를 부여하여 원질서를 존중하여 정리</li> </ul>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필름이 보관되어 있던 원보관상자 별로 상자 내 질서에 따라 정리</li> </ul>

드 필름의 경우는 자켓의 규격과 달라 원래 삽입되어야 하는 자리에 슬라이드 필름의 위치를 표시한 메모를 삽입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B·C급 필름 보존상자는 원래 보관되어 있던 원보관상자 별로 1개 보존상자로 하며 상자에 삽입하는 자켓 수는 원래 보관되어 있던 상자 별로 50장을 삽입하였다. 원보관상자의 필름 정리에 필요한 자켓이 50장 이상일 경우 동일한 보존상자 번호를 부여<sup>16)</sup>한 다른 보존상자에 이어서 정리하며 자켓 페이지 번호를 연번으로 하여 표시하였다. A급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필름과 같이 자켓의 규격과 다른 필름은 원래 삽입되어야 하는 자리에 슬라이드 필름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 메모를 삽입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 정리하였다.

#### 4.2 최민식 컬렉션의 기술

최민식 사진기록물에 대한 기술은 Ritzen-thaler(1993)의 사진기록물의 특성과 ISAD(G)

의 다계층 기술의 원칙을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계층적 기술을 적용하여 상위계층에서 기술된 내용은 하위계층에서 중복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술의 표준화를 수립하고, 각 기술을 연계하며, 내적관계가 존재하는 연관기록물에 대한 기술을 기준으로 삼았다.

##### 4.2.1 컬렉션 레벨의 기술

1957년 최민식은 일본중앙미술학원을 다니던 때, 스타이켄의 「인간가족」에 감동하여 사진을 시작한다. 1963년 사진협회부산지부 신록촬영대회(6월 16일), 제1회 신사조사진콘테스트(9월 16일),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9월 16일), 제14회 개천예술제(11월 18일) 등에서 수상하면서 알려진다. 1968년 사진집 『인간』 1집을 내었고, 이후 14집에 이르고 있다. 사진작가 최민식의 촬영 작업과 저작 및 출판활동은 1957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0년간의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생산하는 일관된 기록활동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최민식 컬렉션을 구성하는 기록물을 시리즈

16) 예를 들어 B51번 상자의 전체 자켓 수가 120장인 경우, B51(1/3) 상자에 50장, B51(2/3) 상자에 50장, B51(3/3) 상자에 20장을 정리하였고 자켓의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연속으로 표시하였다.

로 분류하면 13만 여 점을 넘는 필름, 1만점에 달하는 인화사진과 사진집·사진연구서·수필집 등 26권의 출판서적, 84권의 사진연구스크랩, 5박스의 자필원고, 편지·초청장 등 다수, 카메라 상패 등 50여점의 박물, 480여점의 LP음반, 사진전문·사회학 등 국·내외 도서 3,500여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최민식 작가의 서재와 창고에 보관되어 왔으며, 사업팀은 구석구석 있는 그대로 낱낱이 촬영함으로써 물리적 접수 이전에 원질서의 외형을 우선 확보하였다. 낱낱의 기록물은 전수조사과정에서 해철할 경우 기록물의 손상과 원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존현황에 따라 외형적 포장상태에서 수량을 파악하였다.

#### 4.2.2 사진기술의 표준화

전수조사과정에서 최민식 작가의 필름 중에 보관할 만한 것으로 분류된 필름들은 보존자켓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파일링 구조를 살펴보면 최민식 컬렉션에서 사진필름의 최소단위는 컷이다. 35mm 네가필름의 물리적 보존형태에 따른 최소단위는 1컷~5컷이 이어진 1줄이며,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사진필름용 보존자켓 1장에는 5컷 필름 7줄이 삽입되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1장의 보존자켓에는 최대 35컷의 사진필름이 보존될 수 있다.

필름은 3등급<sup>17)</sup>으로 분류하였다. A급은 『인간』 1집~WOMAN까지 사진집에 실린 필름,

B급은 사진집에 실린 필름을 제외한 필름 중 촬영연도 또는 장소를 알 수 있는 필름, C급은 B급 필름 중 촬영연도와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손상이 있는 필름으로 분류하고 A, B, C급 별로 보존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6개의 보존상자를 1박스로 포장하여 최종 이관하였다. A급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세부목록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목록 작성<sup>18)</sup>하였고, 사진집에 게재된 사진 각각의 컷에 대해 서술적인 분석의 형태로 기술하여 사진집 레코드를 작성하여 기록물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B급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세부목록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였고, 촬영연도 및 장소에 대해 집합적으로 기술하였다. C급은 기록물의 현재 보존상태를 원질서로 유지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정리와 기술과정에서 B급 또는 A급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민식 컬렉션의 필름은 주로 35mm 흑백 네가 필름으로 생산되었다. 사진기록물은 다큐멘터리 증거로서 역사적 자원이다. 다큐멘터리 증거의 가치를 지닌 사진기록물은 “기록사진(Documentary Photographs)”으로 사진의 한 장르를 형성한다. 어떤 사실이 존재했거나 사건을 고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진은 다른 기록물 보다 우선하여 활용된다. 최민식 사진집에 실려 있는 글, 그리고 사진작가 최민식에 대한 서적과 최민식의 사진을 연구 논문 등 관

17) 이 등급은 필름의 품질 등급이 아니며 최민식 작가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사진집에 실린 필름을 A급으로 우선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진생산은 촬영과정에서 화면이 1차 선택되어 필름으로 현상되고 인화과정에서 2차 선택되며 보존과정에서 3차 선택된다. 최민식 사진은 다시 출판 과정을 거치며 4차 선택된 것이며 이것은 순전히 최민식 작가의 50년간 일관해 온 선택 기준이었다.

18) 컬렉션명, 게재면, 촬영연도, 촬영월일, 촬영장소, 인원수, 특징인물, 사물, 형태, 색채, 규격, 종류, 보존상태, 사진 설명, 필름번호에 대해 기술.

런 출판물에는 최민식의 작품활동과 철학과 사상 그리고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1957년 이래 촬영된 사진으로 출판된 “인간(HUMAN)” 시리즈 13집 등, 다수의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에는 촬영연도와 촬영장소가 빠짐없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다수의 수필집 저서들로부터 객관적 추적이 가능한 일련의 활동들이 추출될 수 있다.

4.2.3 기록물이 다른 기록물들과 갖는 관계  
 최민식 컬렉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촬영한 사진기록물이 절대 다수의 기록물이다. 이

것은 일반적인 역사기록이 권력자 부유층의 기록이 많은 것에 대비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윤일성(2006)의 논문 ‘도시빈곤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최민식과 김기찬의 사진 연구’는 두 사진작가의 작품활동에서 일관된 주제를 비교하며 “사진에 담아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사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점과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도시빈곤, 도시 속 가난함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그리고 왜 다르게 보이는가?”를 고찰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행정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사진부문 비교

	행정 사진 기록물	최민식 컬렉션
기록물 형태	원판필름, 인화사진, 사진첩, 슬라이드, 스캐너문서	원판필름, 사진집
생산년도	생산년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불명확함
수량	색인 작성에 의해서 확인 가능	확인 불가능 혹은 어려움
건명	사진을 촬영한 목적에 따라 지어짐	생산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없음
인명	피사체의 인명에 대해서 알 수 있음	피사체 인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음
규격	-	35mm
색채	-	흑백이 다수를 차지함
배경장소	정보가 있음	불명확함.
촬영일자	알 수 있음	불명확함.
출처	각 생산기관에 따라 다름	생산자 소유
작성자	전속사진가 또는 처리과	생산자 본인
관련법규	법률에 정하는 대로 촬영 및 정리	적용되지 않음.
주요인물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주요사건 및 행사	사건 및 행사명을 알 수 있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사진설명	건명과 대부분 동일	건명 및 제목명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히 기술
사진요약	건명과 대부분 동일	A급 보존상자내의 목록에 사진요약을 함.
활용	주요인물 참석여부 및 주요사건 및 행사에 대한 연구	하층민의 삶, 서민의 생활에 대한 연구
제목명	건명과 대부분 동일	생산자가 지정하지 않는 한 없음
사진번호	규정에 의해서 작성	-
필름원판번호 <sup>19)</sup>	-	A, B, C세 등급으로 나누어 보존상자에 정리를 하고 각 필름당 필름원판번호를 작성함.

## 5. 결 론

서민의 고달픈 생활을 담고 있는 최민식컬렉션의 사진기록은 행정기록의 사진이 담아내지 못하는 다른 시각의 역사기록으로 지난 50년간을 증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민식컬렉션의 사진기록물을 통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기록물에 대한 정리와 기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정리에 있어서는 메뉴스크립트의 특징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급, B급, C급의 재배열은 최민식 사진기록물인 특성과 접근성을 위하여 정한 원칙이다.

첫째, 최민식 컬렉션의 특성에 적절한 사진 정리는 절대 다수의 기록물인 필름에 등급을 두어 계층적 관리의 한 가지 틀로 삼았다.

둘째, 사진집과 필름, 인화사진, 보관상자의 관련성을 찾아서 기록물 세트 간의 관계의 식별을 시도하였다.

셋째, 보관상자에 대한 최민식 작가의 기억과 습관, 그리고 고유의 필름표식으로 기록물과 그 생산자 사이의 관계 식별을 추적하여 정리작업의 한 요소로 적용하였다.

넷째, 최민식 컬렉션이 한 사람의 작가의 창작활동에 기인한 기록물로서 출처에 의한 정리에 대한 분류보다는 원질서 유지가 더 중요한 작업으로 부각 되었다.

다섯째, 전시와 출판, 이사, 등으로 무너진 필름관리 질서에 대해 원질서를 복원하는 재정리 작업은 최민식 작가의 촬영일정이 포함된 연보를 구축하고, 필름상자내의 복원 가능한 필름묶음 단위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기술부문에서는 Ritzenthaler(1993)의 사진기록물의 특성과 ISAD(G)의 다계층 기술의 원칙을 준용하였다. 최민식 컬렉션의 사진기록물은 인간이라는 관심 소재와 관심 주제로 일관된 기록물을 남기고 있으며, 기록물 세트의 기원, 배경, 출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기록물로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기록물 정리에 따라 파일링 구조는 출판여부와 보관방식에 따라 우선하여 등급을 나누고, 촬영장소와 촬영년도를 적용하는 정리과정을 거치므로 새로운 보존자켓에 삽입되는 등급별 필름은 기술요소의 적용이 등급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즉, 출판된 주요필름은 사진의 피사체를 서술형으로 기술하였고, 그 외의 필름은 촬영연도와 촬영 장소에 대해 집합적으로 기술하였다.

## 참 고 문 헌

김철권. 1998.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예술로서의 사진." 「중부대학교 논문집」, 11.

박재건. 2002. "역사와 사진-기록개념에 관한 새로운 의미-." 「AURU」, 9.

19) 필름원판번호는 인화된 사진이 아니라 보존자켓에 정리되어 있는 필름의 번호임.

- 박진희, 이두영. 2005. "특수형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241-263.
- 뷰먼트뉴홀 외. 1996. 「기록으로서의 사진」. 이주영 옮김. 서울: 눈빛. 원전: *History of Photography: From 1839 to the Present*. baumont Newhall(Author). 1982.
- 이소연. 2002. 「ISAD(G)를 적용한 한국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원연구원.
- 이영배. 2003. 「사진기록물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위논문.
- 정영혁. 2003. "기록으로서의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한국다큐멘터리학회」, 4.
- 진중권. 2003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송고와 시물라르크의 이중주」. 아트북스.
- 최민식. 2005. 「사진이란 무엇인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Fredric. M. Miller저 조경구 역. 2002. 「아카이브와 메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125.
- Theodore R. Schellenderg, 이원영 역. 2002.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Barr, Debra Elaine. 1985. "Analyzing Photographs in Archival Term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Eastalke, Lady Elizabeth. 1857. "Photography, reprinted in *Photography: Essays & Images*." Beaumont Newhall, ed. Boston: New York Graphic Society.
- Eastwood, Terry. 2000. "Putting the parts of the whole together: systematic arrangement of archives." *Archivaria*, 50.
- Francis, George E. 1888. "Photography As An Aid to Local Histor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April).
- Homes, Oliver Wendell. 1895. "The Stereoscope and the Stereograph." *Atlantic Monthly*3(June).
- J. R., Walter Rundell. 1978. "Photographs as Historical Evidence: Early Texas Oil." *The American Archivist* 41(4).
- Ritzenthaler, Mary Lynn. 1993. "Preser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zarkowski, John. 1966. *The photographer's Eyes*, Boston: New York Graphic Society.

<참고 사이트>

- 한국의대영상문화실. 2008. 용어사전.  
<<http://maincc.hufs.ac.kr/~ivc/article/articles/photodic.htm>>

<관계법령>

- 국가기록원. 2006.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안)」.